

춤으로 굿으로...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오는 7월 4일·5일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누산네 니단이'를 펼친다. 단원들이 공연에 앞서 연습을 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 7월 4일 진도 진악당 소리·춤·음악으로 진도 굿 재해석...8장 장대한 서사 아픈 역사 위로

모란이 피었다. 진도 어느 마을, 봄꽃이 흐드러진 날이면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린다. 그 가운데 이름 없이 스러진 이들의 님이 스르르 진도의 바람에 실려 돌아온다.

소리로 부르고, 춤으로 달래며, 굿으로 위로하는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이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를 통해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러낸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 국악연주단이 창작 소리굿 '누산네 니단이'를 오는 7월 4일(오후 7시)과 5일(오후 3시) 오후 3시 진도 진악당 무대에 올린다.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창작국악을 선보여온 국악연주단은 이번에도 진도라는 공간의 시간성과, 이 땅의 기억을 동여맨 채 놓여 있는 슬픔의 기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린다.

이번 정기공연은 2012년부터 이어진 국악연주단의 창작 활동 중에서도 가장 진도다운, 가장 한국적인 공연으로 꼽힌다. 진도의 굿 문화와 토속적 서사를 바탕으로 소리·춤·음악이 결합된 무대는 굿의 의례성과 서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공연은 단순한 창작극을 넘어, 진도라는 땅이 품은 기억을 씻김과 위무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누산네 니단이'는 진도 방언으로 '누구네 넷째

딸'이라는 뜻이다. 한 소녀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 불리지 못한 어느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 공연은 이 잊힌 존재를 중심으로 혼을 부르는 굿을 바탕으로 짜여 있다. 죽음과 삶, 기억과 망각, 그리고 다시 부름을 통해 회복되는 서사를 담는다. 작품은 진도굿의 구조를 바탕으로 총 8장과 프롤로그·에필로그로 구성돼, 굿판의 시간과 서사가 응축된 장대한 구조로 펼쳐진다.

프롤로그 '모란 꽃'에서는 강강술래를 부르며 꽃처럼 피어난 소녀 니단이가 갑작스레 바다로 사라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장 '초혼'에선 당골이 절벽에서 혼을 부르고, 이어지는 2장 '얼마나 불길한 일이나'에서는 멈춰버린 시간과 그것을 모독하는 이들에 대한 풍정이 전개된다. 3장 '이름도 없이 흐르는 물결따라'에서는 니단이의 혼이 나타나 스스로의 부재를 말하고 사라진다.

4장 '진도라니, 진도라니'에선 진도에 파견된 관료 위유사가 점차 사건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5장 '누산네 니단이'에서 갈등은 절정에 이른다. 상여를 부수려는 자들 앞에 누산네와 위유사, 당골이 맞서고, 마침내 니단이의 혼이 모습을 드러낸다. 6장 '천년의 나무들'에서는 자연의 시선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백송과 동백이 등장해 생소(生疏)의 힘을 노래한다.

7장 '내 이름은, 내 이름은'에선 당골의 굿과 위유사의 사과 속에 잊힌 혼들이 되살아나고, 니단이는 스스로의 이름이 '사월'이라 밝힌다. 에필로그에서는 다시 강강술래의 노래가 시작되고, 니단이는 원 안에서 활짝 피어난다. 슬픔은 위로로, 상처는 봄의 꽃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극은 굿의 전통 구조를 따르면서도 문학적 서사와 음악극 형식을 결합했다. 상여가 가라앉고, 당골이 노래하고, 바람이 흐르는 전 아래에서 이름 없는 혼이 길을 찾는다. 굿판은 점차 넓어지고, 마침내 이름을 되찾은 님이 봄의 기억과 함께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죽음의 장례가 아니라, 이름을 통해 존재를 복원하는 시간의 의례다.

연출은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종묘제례악'을 맡았던 남동훈이, 작곡은 유민희, 대본은 천정완, 무대디자인과 조명은 오태훈·이경은이 맡았다. 국악연주단의 연주와 함께 소리꾼, 배우, 무용수들이 굿과 극, 음악이 맞물린 복합 예술로 무대를 채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진도읍사무소 및 고군면 장동문화센터(오일시장)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예매는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통해 가능하다.

봄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모란처럼, 한때 잊혔던 이름이 다시 불린다. 그것은 진도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간직한 어떤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일상의 모든 공간, 청년예술가 무대로

29일까지 전라·제주권 '청춘마이크'...광주, 28일 DJ센터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6월 공연이 오는 29일까지 펼쳐진다. 지난 5월 공연 무대에 오른 리퍼아트컴퍼니. <웨이브팩토리 제공>

광장과 공원, 도서관 등 시민의 일상 공간이 청년예술가들의 무대로 변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이 6월에도 이어진다. 오는 29일까지 전라 지역 5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청춘마이크'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거리공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슬로건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일상 공간을 예술 무대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진다.

이번 공연은 지난 25일 나주와 무주를 시작으로 익산, 광주, 무안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어진다. 익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28일 주민과 함께하는 '청춘 산책' 콘서트가 마련된다.

27일에는 무안 남악중앙공원에서 푸른 자연을

배경으로 청년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무대가 관객과 만난다. 마지막 공연은 29일 무안 화산백련지 연꽃축제장에서 진행된다. '화양연화'를 주제로 한 이 무대는 연꽃이 만개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분위기의 피크닉 콘서트로 6월 무대를 마무리한다.

특히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특별 무대가 하이라이트다. '광주미래산업 엑스포'와 연계해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무빈업패밀리, 솔벤드, 신혜미, 프로젝트온, 아르캉시엘 등 전라·제주권 청년예술가 5개 팀이 출연해 밴드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첨단 산업과 청년예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조합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문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관련 정보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 공식 SNS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미장센단편영화제 1891편 각축

10월 개최...역대 최다 출품

미장센단편영화제 집행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1회 영화제 예심에 총 1891편의 영화가 출품됐다고 25일 밝혔다.

제19회(1197편) 때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역대 최다 출품 편수라고 집행부는 설명했다.

김영우 프로그래머는 "그간 단편영화 중심 영화

제가 부재해 창작자들이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장센단편영화제는 장르 중심 영화제로, 창작자의 개성과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폭넓게 수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품작들은 감독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다. 최종 경쟁 부문 진출작은 본심 이후인 오는 9월 공개된다.

2002년 처음 열린 미장센단편영화제는 유명 감독과 배우를 배출하며 '상업영화계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20주년이던 2021년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최근 장재현, 한준희, 윤가은, 엄태화, 이상근, 이옥섭, 조성희 등 7명의 영화감독이 집행부를 구성해 4년 만에 부활을 알렸다.

집행부는 "기발하고 독창적인 작품, 예측 불가능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감독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영화제가 한국 영화산업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삶에 대한 사유와 통찰

보성 출신 박연식 수필가, 두 번째 작품집 '울림을 녹음하다' 펴내

보성 출신 박연식 수필가가 두 번째 작품집 '울림을 녹음하다' (서석)를 펴냈다.

첫 수필집 '함께 밝은 페달' 이후 15년 만에 발간한 이번 책은 오랜 공백만큼이나 여문 글과 사유가 응집돼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수필'로 등단한 저자는 시와 수필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전개해왔다. 글을 손에서 떼지는 않았지만 작품집으로 묶어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능소화처럼 더디게 틀어올라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단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머니였다. "충증시하에다 8남매의 육아로 눈꺼풀이 짓눌려도 붓글씨로 글을 쓰고 책을 읽으셨다"는 어머니를 통해 작가는 문학하는 용기와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모두 50여 편의

글은 작가가 일상에서 체험하고 느낀 단상들이 정갈한 글들로 감무리돼 있다. 올해 만 83세이지만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사유와 삶에 대한 통찰을 견지한다.

'울림을 녹음하다'라는 작품집 제목이 암시하듯 작가는 만화방창하는 봄꽃과 신록의 풍성함을, 신비로움을 노래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계절이 바뀌는 운전에 대한 감수성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한편 박 수필가는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 상담교사로 30년간 활동했다. 지금까지 수필집 '함께 밝은 페달' 외에도 서간문집, 다카시집 등을 펴냈으며 광주시인협회 작품상(시)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